[멀티캠퍼스용: '시행착오 부각']

- 초기 주제선정: 지역별 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우선 배치 필요 지역 선정

- 최종 version: 돌봄교실 수(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 학교+재정자립도+도서관+작은도서관+다문화가정수

- 최종 회귀분석에 들어가는 독립변수가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인프라'에 해당함

- 종속변수인 돌봄교실 수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학교수의 신뢰도가 학생수보다 높게 나타남)

- 최종 주제 변경: 돌봄교실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초등 돌봄교실 향후 개선방안 도출

(양적확대-->양+질적확대)

(ex.돌봄서비스의 개선, 정권 변경 후에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교육부 공모전: '결과 부각']

- 주제: 돌봄교실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초등 돌봄교실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서비스의 질적 측면 제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선진사례 참고: 미국, 독일

1) 미국 - 위스콘신 주 교육부

: 2002년부터 '21세기 지역사회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 총 1400여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

2) 독일 - 전일학교제

: 오후까지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 형태(방과후 점심을 제공하고 취미활동 및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골자)

: 평균 출산율 1.4명일 때 돌봄교실 이용률 34%에 달함, 202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

2. 한국 돌봄교실의 역사 및 현황

-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확대된 건 문재인 정권 이후

- 자녀교육경력단절 통계(찾아보기-있다고 함)

-

3. 한국 돌봄교실의 문제점

1) 교사 수 부족

- 전국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24만 1천명(2016) --> 26만 4천명(2017) --> 27만 6천명(2018)

- 하지만 교사 수는 큰 변동이 없음

- 교육부 <2019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시도별 운영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각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천차만별임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은 최대 22명, 광주시 교육청은 최대 23명, 경북 교육청은 25명이내로 교사 1인당 평균적으로 20명 내외 인원을 맡아야 함)

2) 다양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3) 불충분한 시설 설비